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오 5,4)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혁신시키세요.

언뜻 보기에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
박해 받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행복하다” 고
하세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정한 종류의 고통 받는
이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모든 이**,
어른이건 아이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인종이나 지역,
불행, 재앙,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물질적 재산을 잃었거나
존중 받지 못하는 등
모든 원인으로
고통 받는 이와
실망과 마음 속의 말 못할
고통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과
네가 만일 지금 고통 받고
있다면 너도 생각하세요.**

centro.rpu@focolare.org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래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이 세워질 때를
암시하시며, 이미 고통을
반으로 줄이는 희망을 마음
속에 불러 일으켜 주세요.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98
Parola di Vita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movimento dei
focolari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4)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통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현재도
생각하세요.
사실 예수님의 왕국은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 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서
선포하신 진복은
지금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가볍게 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덮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서
받아들이셨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세요
그 분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싫어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고 질질 끌지 않고
«받아들이기» 바라세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해요.

네 어깨에 잘 메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마치 햇불이나 깃발처럼
휘 두드기를 원하세요.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98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그러면 왕국의 기적이
일어나요. 너는 그것을 지고 갈
수 있고 심지어 눈물 중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돼요.

네 안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
것은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왜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게 돼요.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시련을 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께서서
어떻게 그 구원 사업의 수단인
고통을 바라보고 받아 들이
셨는지 보게 해주는 **새로운 힘**
이 있어요.